

영월 청령포와 동강을 찾아서

강 옥
자유기고가

산과 강이 벗하며 절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땅 영월(寧越). 강원도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군은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이 첩첩이 뻗어있는 내륙 산간지역으로, 오이처럼 길쭉하게 생긴 땅이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다. 영월은 산이 깊은 강원도에서도 더 산이 깊은 곳이다.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있고 소백산맥이 남쪽으로 뻗으면서 천오백 미터가 넘는 태백산을 포함해서 사자산, 백덕산, 배향산, 백운산, 응봉산, 매봉산 같은 높고 가파른 산이 겹겹이 솟아 있다.

한편 칼 같은 산들의 골짜기마다에 비단 폭을 펼쳐놓은 듯한 맑은 물줄기가 이 군의 곳곳에 흐른다. 자갈한 물줄기는 제쳐두고 영월에서 강이라고 부를만한 물줄기는 셋이 있다. 곧 수강, 암강으로 불리기도 하는 동강, 서강과 영월군의 동쪽 탄광지대를 두루 거쳐 흐르는 옥동강이 그것들이다.

평창군의 홍정산과 횡성군의 태고산에서 발원한 서강은 이 군의 서쪽 지방을 두루 거쳐 흐르다가, 정선군 쪽에서부터 흘러 내려와 영월읍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흐르는 동강을 만나서 마침내 굽은 물줄기가 된다. 즉 서강과 동강이 합쳐서 이루어진 남한강은 남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하동면 대야리에서 동쪽 탄광지대를 거치면서 옥동강을 맞은 뒤에 강원도 땅을 벗어나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빠져나간다. 이 물줄기를 통해서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마포 나루에서 이곳까지 소금 배가 드나들었을 정도였다.

영월 땅에는 어린 유배자의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영월은 조선조 비운의 왕 단종이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한 맺힌 흔적들이 곳곳에 스며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단종 관련 유적이 많은 영월은 충절의 고

장으로 자랑스럽게 불리 운다.

단종(端宗)은 문종의 외아들로 12세의 어린 나이로 조선 제6대 임금에 올랐으나 숙부인 수양대군(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3년만에 몰려났다. 그 후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은 1457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으며, 1년 후 관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17세의 나이로 한 많은 생을 마쳤다. 그의 한 줄기 바람 같은 가여운 넋이 영월읍 영흥리 동을지산 장릉(莊陵)에 잠들어 있다.

단종이 처음 유배되었던 청령포는 영월읍에서 남서쪽으로 4km 지점인 남면 광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남한강의 한 지류인 평창 주천강이 만나 영월의 동강으로 흘러드는 서강의 끝머리로 삼면이 강으로 둘러 쌓인 곳이다. 뒤편은 병풍을 둘러친 듯한 기암절벽이 솟아 있어 지형적으로 천연의 유배지라 할 수 있다. 울창한 송림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육지의 고도’ 청령포는 단종의 한(恨)이 점철된 역사의 장소다. 단종은 이곳에서 약 2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하던 중 홍수를 만나 영월 동헌의 관풍헌으로 옮겨 1년여 동안 지내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았다.

단종이 숨을 거두자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는데, 평소부터 충성심이 강했던 영월 호장 엄홍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 기슭(지금의 장릉)에 암매장했다. 그 뒤 59년이 지난 중종 11년(1516)에 노산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내려오나 엄홍도 일가족이 자취를 감춘 후라 묘를 찾을 길이 막연했다. 그 후 중종

31년(1541)에 신임군수로 내려간 박충원(朴忠元)이 꿈속에서 단종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하여 묘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장릉은 아름답디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곳의 소나무는 서쪽을 향해서 구부러진 것이 많아서 서울을 그리던 단종의 넋이 소나무에 배어들어 그렇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한 장릉 옆에 창절사라는 사당이 있다. 창절사는 숙종 때에 강원 감사 홍만중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죽은 사육신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사당이다. 이곳에는 사육신의 신주와 함께 생육신에 드는 김시습, 남효온과, 박심문, 엄홍도와 같은 이의 신주를 모셔놓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영월군에는 단종에 얽힌 유적지 말고도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다. 수주면 법흥리 백덕산 기슭에 있는 법흥사는 인제군 봉정암, 정선군 정암사, 오대산 상원사, 양산군 통도사와 더불어 신라 실성왕 때에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진신 사리와 가사를 보관하고 있는 절로 이름이 높다.

조선시대 풍류시인 난고 김삿갓의 시심(詩心)이 흐르는 김삿갓 유적지는 강원·충북·경북의 3도 접경지역으로 태백·소백산맥이 맞닿은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 사이로 흐르는 곡동천은 유리알처럼 맑고 풍부한 수량과 주위의 울창한 원시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유적지 내에는 김삿갓 묘역, 생가 터와 함께 김삿갓 시비(詩碑)거리가 조성되어 이를 음미하려는 문학

인 및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영월 동강(東江)은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정의 강이다. 국내 하천 중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경관 또한 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어라연은 동강의 절경 중 백미로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등 3개의 봉우리가 푸른 물 속에 진주처럼 놓여 있고 기암절벽 사이의 소나무들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잣봉에서 내려다보는 어라연은 비경중의 비경으로 손꼽힌다.

영월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둘이나 있어 눈길을 끈다. 하나는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높이 18m, 수령 1,200년을 헤아리는 거대한 은행나무로 천연기념물 제7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 나무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의 은행나무와 더불어 나라 안에서 둘레가 가장 큰 은행나무로 꼽힌다. 이 나무 속에는 영험스러운 뱀이 살고 있어서 그 근처에 개미나 모기가 얼씬거리지 않고 닭이나 개도 그 곁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지면 나라에 큰 변이 생긴다고 전해오는데, 외적이 침입할 당시에는 이 나무의 동편 큰 가지가 부러진 일이 있었고 8·15 해방과 6·25 동란 시에도 큰 가지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천연기념물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고씨동굴이다. 이 동굴은 종유굴로 땅속의 석회암이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지하수나 빗물에 녹아 이루어진 동굴이다. 고씨동굴은 4~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체 길이가 6.3km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 동굴로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동굴은 임진왜란 때에 이 지방에 많이 살던 횡성 고씨들이 난리를 피했던 곳이라고 해서 고씨동굴로 불린다. 굴 속에는 그때에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때어 그을린 흔적과 솔을 걸었던 자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영월은 내륙 산간지역으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내고 연간 강수량의 60%가 7~9월에 집중되고 있다. 영월군은 워낙 산이 많아서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작지에서도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밭이다. 따라서 논농사는 보잘것이 없고 옥수수, 고추, 마늘, 감자, 콩 같은 잡곡이 더 많이 생산된다. 나아가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농특산물과 원예작물이 재배되어 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의 옥수수는 생산량이 많기도 하지만 품질도 뛰어난데 특히 주천면 신일리, 수주면 무릉리 등지에서 많이 재배된다.

이 지방의 특산품인 영월 조선 고추도 김장철이 가까워 오면 장사꾼이 아니라도 원주나 서울 같은 도시의 사람들이 직접 사러 올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점토질 토양에서 재배되는 영월고추는 색깔이 곱고 껍질이 두꺼우며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며 저장성이 강하다. 포도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낮과 밤의 일교차의 폭이 큰 산간지역 석회암지대 토양에서 재배되는 영월포도는 껍질이 부드러우며

탈립 현상이 적고 당도가 높아 호평을 받는다. 이 외에도 한우,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더덕, 인진쑥, 벌꿀, 취나물, 오이 등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이 지방에서 생산된다.

21세기를 맞아 영월군은 숨쉬는 역사광지로서의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와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관광 영월’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영월의 풍요한 미래는 자연친화적인 문화 관

광지로서의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영월군에서는 조선민화박물관, 영월책박물관, 곤충생태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이색박물관 기행 코스를 개발하고, ‘오지를 찾아서’, 시골 문화체험 같은 색다른 여행상품을 만들어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 문화 큰잔치’도 이 지역의 3대 축제로 풍성한 문화유산의 향기를 풍겨준다. 

